

소설가 이문열, 장편소설 《호모 엑세쿠탄스》 출간

# 소재를 정치로 삼았다고 해서 정치적이라 할 수는 없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다시 논란의 가운데 섰다. 계간지<세계의 문학>에 연재됐던 《호모 엑세쿠탄스》(전3권)가 출간되면서 세인의, 특히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소설에는 현 정권과 386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러나 소설 전체가 '정치적' 발언으로만 도배(?)된 것도 아닌데 이리도 유난한 것은 역시 '소설가 이문열'이란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 때문일 터.

소설 출간과 동시에 쇄도하는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쁜 그를 만나보았다. 예의 그 '정치적'인 얘기부터 먼저 꺼내려는 기자에게 그는 먼저 '책을 끝까지 읽어 보았냐'고 묻는다. 정작 책은 읽지도 않고 '정치적'이니 '보수적'이니 하는 이들에게 어지간히 시달린 눈치다. 그는 "소설가가 소설을 써놓고 소설은 소설로 읽어달라고 해야 하는 시대"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또한 "문학이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정치이다. 문학이 정치의 도구가 되거나 정치에 봉사할 때 정치적이라고 말해야지, 소재를 정치로 삼았다고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사실 이 소설은 정치적이raq기보다 종교적이다. '처형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호모 엑세쿠탄스'는 역사 이래 모든 신성(神聖)의 존재를 죽여 온 인간의 또 다른 속성을 일컫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보일러공과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시민단체 '새여모' 무리들의 전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해방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3년 전 이 소설을 구상할 때 우리 사회에 팽배한 종말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종말론'이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달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세상의 모든 구원론은 종말론과 붙어있다.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은 구원론의 전제, 혹은 이면일 수 있다. 종말의 예언을 위한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종말론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버드대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그는 이번 소설의 출간에 맞춰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2월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미국에 2~3년 더 체류하면서 노년을 위한 지적 양식을 마련하는(웃음) 시간을 가져볼 것인지, 아니면 몇 달만 더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밀린 작품들을 쓸 것인지 확실한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